

애플 망고 · 구아바 · 패션프루트 · 커피 등

따뜻하고 온화한 남해 '과일 지도'가 바뀐다



여주시 등 남해안의 기후 여건이 변화 하면서 아열대 과수 인 애플 망고와 커피 등 재배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수확전 여주시 화양면 강모(43·여)씨의 열대 과수 농장에서 재배된 애플 망고를 어린이들이 바라 보고 있다.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의 남해안 도시들이 애플 망고와 커피 등 아열대 과수 재배의 최적지로 변모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형 지형의 여주시와 고흥군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30개 농가에서 3만8799㎡ 규모의 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별로는 레드향 9870㎡로 가장 많고 이어 천혜향 5113㎡, 황금향 4300㎡ 등으로 만

고흥군은 2011년부터 6억 원을 들여 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후 변화 대응 신 소득 작목 육성사업을 위한 특화작목연구단지를 설치했으며 단지 내 비닐하우스 5동 4011㎡에는 애플 망고 등 다수의 아열대 과수가 시험 재배되고 있다.

패션프루트와 커피는 지난해 14 농가 1.9ha 규모로 보급돼 재배 중이다. 2020년까지는 커피 재배 면적을 지금의 10여 배에 이르는 10ha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에는 아열대 과수로 관심이 높은 올리브나무를 노지 포장에 심어 품종별 특성 및 내한성 구명 등 시험 연구 중이다. 군은 이탈리아산 올리브 5종 59그루를 풍양면 770㎡에 심어 적응 시험 중이며, 시험을 통과하면 농가에 소득원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연평균 기온 13.6도이며 일조시간은 전국 최대로 2370시간 이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난방 시설 설치에 따른 연료비 부담 등 아열대 과수의 재배상 문제점이 여전히 패션프루트, 용과 등 저온형 아열대 과수부터 시험 재배 한 후 점차 소비성이 높은 애플 망고 등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서 아열대 기후로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11월 평균기온이 10도를 넘어서면서 제주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등 남해안권의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과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남해안권의 아열대 과일 재배는 현재 소규모 재배 사업이 대부분으로 본격적인 소득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사업성을 담보한 규모화와 상품화, 안정적 시장 확보 여부 등 빠르게 바뀌고 있는 남해안 아열대 과일 지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는 3401농가, 1478ha로 영암 785농가(418ha), 고흥 767농가(290ha), 신안 336농가(117ha), 보성 309농가(171ha), 순천 204농가(60ha), 여수 106농가(16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춘경 기자

광주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헤림건설' 선정

59~84㎡ 아파트 930가구 분양

광주 동구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에 헤림건설이 선정됐다.

10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 총회를 갖고 모아벨가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헤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은 계림동 일원 4만5756㎡의 면적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아파트 12개동(지하 2층~지상 25

층), 980가구를 분양한다.

아파트 완공시기는 2021년~2022년이고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계림4구역은 계림초 광주고, 광주교육대 등의 학교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2023년 완공될 지하철 2호선 광주교대역이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 제2순환도로를 통해 광주 어느 곳이든지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단지 뒤편에는 푸른길이 자리잡

고 있어 조깅이나 산책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차로 5분 거리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쇼핑몰이 있고 전통시장인 말바우 시장도 인접해 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따라 2018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계림4구역 김영선 조합장은 "그 동안 주민들간 이견으로 시공사가 해지되는 등 법적 분쟁을 겪었으나 모두 해결됐다"며 "시공사 선정으로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2018평창올림픽 공식스토어 문열다

롯데백화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사업권자로 광주점도 평창 올림픽을 함께 나누고자 팝업스토어 매장을 마련했다. 이 매장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등을 활용해 개발한 인형, 머그컵, 텀블러, 의류, 모자, 머플러 등 400여가지 상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

추석연휴 백화점 매출 15% ↑

해외여행 증가에도 연휴 효과 싹쓸...대형마트도 늘어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최장 열흘간의 추석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에도 매출 증가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객과 고객층이 겹쳐 매출 부진 우려가 있었던 백화점이 전년동기 대비 15% 정도 매출이 늘어 활기를 띠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3사의 추석연휴기간(9월30일~10월7일)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평균 15% 신장했다. 롯데백화점의 추석연휴기간 매출은 기존점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23.3%, 신세계백화점

은 9.1%, 현대백화점은 7.0% 늘었다.

백화점의 추석선물세트 판매도 롯데 3.7%, 신세계 12.6%, 현대 0.3%, 갤러리아 3.0% 등 업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 내외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객 증가로 지난 5월 연휴와 같은 매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긴 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겸해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늘었다"면서 "쌀쌀해진 날씨로 가을, 겨울 옷을 장만하

려는 수요가 있었고 연휴 기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겹쳐 이벤트와 할인행사가 많았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업계도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늘었다.

전년 추석과 비교해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홈플러스는 2.5%, 롯데마트는 2.2% 각각 증가했다. 이마트는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3.2% 감소했지만 연휴기간 전체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8% 넘게 늘었다. 면세업계는 내국인 해외여행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연휴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최대 대목이었던 중국 국경절 기간이 겹쳤지만 롯데면세점은 전년대비 15%,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10% 정도 매출이 줄었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이로서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